

정세현 통일부 장관 내외신 주례브리핑

2004년 6월 24일 11:00-11:35, 제 1 브리핑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오늘(6월 24일) 오전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개발사업 ▲개성공단실무회의 제2차회의 ▲남북군사통신실무자접촉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 관련 실무접촉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대북비료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라크에서 테러단체에게 참수당한 故 김선일 씨에 대해 억울하고 처참하게 희생된 데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과 관련된 실무접촉에서 합의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오늘과 내일에 걸쳐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6월 25일) DMZ 내 분계선상에서 남북군사통신실무접촉이 있을 예정이고, 또한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쪽 농민단체 640명과 북쪽 농민단체 400명이 모여 남북농민통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접촉과 대화, 교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은 22일에 김동근 씨가 개성공단 관리기관 초대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한시기구인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6월 29일 발족예정인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기획조정팀, 공단관리팀, 사업지원팀, 행정지원팀 4개 팀을 두게 되고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창설준비위원회 조직과 인력은 추후 관리기관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 6월 30일에는 개성공업단지 내에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이 개최되는데 현재 약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단지 개발은 1단계 개발사업 및 전체 공단개발의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에서의 기업 설립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해줄 것인지, 또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당국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부터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2차회의에서는 이미 체결된 통신?통관?검역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 개최되는 군사통신실무접촉은 노상회담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선로 연결방법, 쌍방 통신연락소 설치와 운영문제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이 합의를 해놓았던 우리측 대령급과 북측의 대좌급 부대간 운영되던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라인과 별개로 서해함대사령부와 연계가 되는 직통전화선을 연결하기 위한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촉을 통해 통신연락소 설치?운영방안이 마련되면 8월 12일 시험통신을 하고, 15일부터 새로운 선로를 이용

해서 남북 해군간 연락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과 관련해서는 선수단 호칭이 KOREA로 합의됐고, 깃발은 한반도기, 공동입장시 음악은 아리랑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하면서 이는 남북간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서는 오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하게 된다고 말하며 북측은 우리측이 보낸 200명의 명단에 대하여 160명의 생사를 확인해 왔으며, 이중 110명만이 생존으로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이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마인드 확산과 노동의욕 증대에 기여가 많았고 생산, 원가, 판매 등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02년에 1.2%, 2003년에 1.8%의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빈부격차나 소외계층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더 많은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현단계의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체제내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제 27항차 비료 5천 톤이 여수항을 출발해 해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며, 이로써 20만 톤 비료전달은 종료되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질의답변 내용이다.

Q : 7월 8일이 김일성 사망 10주년인데 북한의 매체에서 보도하는 바가 없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북한이 김일성 10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가?

A : 앞으로 시간이 많아 남아 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Q : 그런 게 감지가 되고 있는가?

A : 내부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보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통일정책실장 답변)추모행사는 보통 1년에 7~8건정도 사망관련 추모행사를 하는데, 5주기 때는 22건 정도 했다. 이번에는 10주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칠 후면 시작될 것으로 본다.

Q : 40만톤 쌀지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A : 국회보고가 있어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Q :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날짜가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있는가?

A : 김정일 위원장의 해외방문은 통상적으로 사후에 확인하는 식이었다. 즉 비공개로 진행된다. 북한이 현재 경제가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 용어로 내부예비가 고갈된 상황이라 외부예비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면 어디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

Q : 김일성 사망 10주기와 관련 조문 이야기가 나올텐데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는가?

A : 그 문제는 교류협력법 또는 남북관계와 국민정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화해협력 쪽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긴장상태가 풀리지 않은 측면도 있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거라고 본다.